

# 국제개발협력 평가 실무 역량 강화

### 전북대, EDCF 전문가양성 일환 스리랑카 기술대학 건립사업 사후평가 학생 주도 현장 조사 나서

전북대학교가 학생 주도의 현장 조사로 국제개발협력(ODA) 평가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4~12일 스리랑카 콜롬보와 감파하 일대에서 EDCF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K-Tec)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사후평가 를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조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이론으로 익힌 평가 설계와 지표 이해, 데이터 수집·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학생들의 실전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주한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국제학부 전공에 'Monitoring & Evalu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과목을 개설, 유상원조(EDCF) 사업의 시행체계와 평가 방법론을 심화 교육해 왔다.

또한 평가·원조 분야 전문가 특강과 한국수출입은행 탐방을 운영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으며, 우수 수강생에



전북대학교가 지난 4~12일 스리랑카 콜롬보와 감파하 일대에서 EDCF 콜롬보 중앙 직업훈련원(K-Tec)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사후평가를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학생들이 콜롬보 K-TEC에 방문한 모습이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개 해의 실습과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참여 기회를 부여해 이론·현장·결과물'로 이어지는 실무형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현지 조사에는 국제학부·국제 이공학부·경영학과·무역학과 등 4

개 학과에 소속돼 있는 한국·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필리핀·베네수엘라 등 5개 국적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상 사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EDCF 차관사업으로, 두 직업훈련기관의 시설

개보수와 장비 지원, 기술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예비 평가 결과, 사업은 스리랑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인력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K-Tec은 국가 대표 직업훈련시설로 자리매김해 콜롬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0여 명의 졸업생이 한국에 파견됐다.

한편, 감파하 기술대학은 기존 Level 3(기초·중급 기능인력 양성)에서 EDCF 사업을 통해 Level 5·6(고급 산업기술 인력 양성) 과정까지 운영하는 기관으로 도약했다.

문경연 교수(국제학부)는 "교과·탐방·현지조사·보고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습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평가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며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사후평가 보고서에 반영해 사업 효과성을 정교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열린 '2025 부안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영어 체험 연수'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영어에 대한 자신감 생겼어요”

### 전주대-부안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영어 체험 실생활 속 영어 활용 능력 배양에 초점 맞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5일 본교 캠퍼스에서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 부안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영어 체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부안교육지원청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안 지역 초등학생 50명이 참여했다. 이에 학생들은 13박 14일 동안 전주대 스타센터와 기숙사에 머물며 원어민 교수진과 영어 전공 재학생(TA)의 지도를 받으며 영어 몰입형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경험했다.

프로그램은 실생활 속 영어 활용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 'Teach the Teachers' △ 'Geography Day' △ 'Science Day' △ 'Show & Tell Night' 등 참여형 수업과 팀 프로젝트 및 영어로 진행되는 식사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며 자기 표현력과 협업 능력을 키

울 수 있었다. 부안동초 고하영 학생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며 “원어민 선생님과 TA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토드 모리스(Todd Morris) 센터장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안교육지원청 김수안 교육장은 “먼저, 14일간 자녀들을 믿고 맡겨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해 준 전주대학교 연수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주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21일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 최초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 비상사태 발생 시 학생·교직원 안전 보장

### 전북교육청, 2025년 을지연습 21일까지... 비상 대비 태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21일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 시 지속적인 교육 기능 유지와 학생·교직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분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모든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8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중요문서 반출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수준 높은 비상 대비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전시 상황시 예상되는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부서별 토의 및 결과 제출을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이뤄지는 공습 대비 민방

위 훈련에서는 대피소 찾기·방독면 착용 등 교육현장에서 대응 가능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든 훈련은 실제 행동 위주로 진행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상황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사이버공격 막아라”... 단계별 위기대응 태세 점검

### 전북교육청, 을지연습 일환 21일까지 전산망 침투·해킹메일 대응 등 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을지연습 일환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훈련기간 중에는 사이버 위기 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단계로 발령되며, 각 단계별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훈련은 도상훈련, 전산망 침투·대응 훈련, 해킹메일 대응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해킹메일 대응 훈련은 본청 간부진을 포함해 실시함으로써 관리자들의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해킹메일 대응 훈련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해킹메일을 실제 발송 후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미열람 여부 △해킹메일 열람 시 즉시 신고 여부 등 대응 절차 이행여부와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23일에는 미래교육원 주관으로 2025년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 재난 및 장애 대비 모의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이스(NEIS), K-에듀인 시스템, 누리집 등의 재난 및 정전, 화재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미국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최근 비전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출발과 성공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임 교학취임처장을 비롯해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 학생 멘토 홍수미 교수, 이은지 간

호학부 지도교수, 학생성공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어학능력과 전공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생을 선발, 올해 2학기 미국의 대학과 산업체에서 16주간 어학연수 및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학과는 간호학부며, 학생들은 1인당 약 1,500만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한 학기 동안의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장은성 기자

##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 사전예고제 시행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평화의정당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 △특수학급 설치 업무의 흐름 △지원 예산 △환경 구성 사례를 비롯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9월까지 사전예고제 시행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청렴소통·갑질 예방’ 전북

### 교육청감사관실 카카오톡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 간 청렴 소통과 갑질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관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관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청렴 소식 및 유익한 감사정보 제공 △ 자주 묻는 질문(FAQ) 챗봇 운영 △갑질 예방 상담 및 신고 안내(운영시간: 매주 목·금요일 13:00~17:00)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분청 소속 기관과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관실’을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카카오톡 채널이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갑질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친구 추가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http://www.jmaeil.com)

## 첨단 산업기술·글로벌 연구환경 체험 기회 제공

### 전북대 RISE사업단, 캐나다 캘거리대서 글로벌 PBL 운영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손정민)은 지난 4~15일 캐나다 캘거리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에서 글로벌 실험실 파견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에게 첨단 산업기술과 글로벌 연구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생명·전환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는 생명,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3개 전공 분야의 3~4학년 대학원생 14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3D 바이오프린팅 △나노바이오 센서 △ 자율주행 로봇 구축 등 첨단 분야의 현장을 실습을 통해 산업 맞춤형 역량을 쌓았다.

또한 팀별 자율 프로젝트, 기업체 방문, 그룹별 실험 발표 등 글로벌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연구진과 산업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는 멘토링을 통해 진로 탐색과 연구 동기도 제고했다.

특히 RISE사업단은 이번을 계기로 캐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AKCSE)와 교육·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 향후 인재 교류와 공동 연구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학생들은 8월 말 결과발표회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교원임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 전북교육청, 공개 설명회... 합격자 경험 공유 등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임용시험 절차와 일정 소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와 합격자의 생생한 경험 영상 상영 △원서 접수용 사진 촬영 △중등 체육 과목 실기 평가 기기 중목(축구, 배구, 농구 중 2종목) 추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시험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와 응시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시청각 자료로 자체 제작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영상이 응시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합격자의 실제 경험을 담은 ‘합격을 말하다’ 영상 상영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참석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설명



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응시 예정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응시 예정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신뢰받는 공정하고 교원 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